

## '부산 5선' 서병수, 한동훈 명예선대위원장 합류...국민의힘 탈당

등록 2026.05.07 19:26:06



[부산=뉴스시스] 하경민 기자 =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서병수 전 의원. 2024.07.10. yulnet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하지현 기자 = 부산에서 5선을 지낸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.

서 전 의원은 이날 뉴스시스와 통화에서 "한동훈 후보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"며 "깨끗하게 탈당하고 맡는 게 좋겠다 싶어 서 오늘 탈당계를 냈다"고 밝혔다.

한동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"서병수 전 부산시장님(5선 국회의원 경력, 전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)을 부산 북구갑 한동훈 후보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"며 "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을 향한 용단에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한다. 반드시 승리해 북구의 미래를 열고, 보수 재건 하겠다"고 밝혔다.

한 후보는 이날 공동 선대위원장에 조성호 전 부산시 행정자치국장과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영입했다. 후원회장으로 는 부산 북구에서 3선을 지낸 정형근 전 의원을 영입했다.

이들 모두 오는 10일 부산에서 열리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. 일부 국민의힘 친한(친한동훈)계 의원들도 한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judyha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